

79 決算 國家의 大型課題 解決策 모색

— 科学化運動의 旗手로 對民間活動강화 —

科總 傘下會員의 隘路點 打開 등 注力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진흥 창달을 위한 國家의 大型課題의 解決策을 研究檢討하는 한편, 國內外的인 學術活動과 各學會 育成 및 全國民의 科學化運動 등 科學기술 風土造成事業을 꾸준히 추진해온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올해의 활동은 그 어느해 보다도 의욕적이고 활기찬 것이었다.

지난해 閱覽植박사를 제5대 회장으로 맞아 우리 科學기술계가 당면한 현안문제해결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한편, 전국민과학화운동의 선도주자로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科總은 작년에 구축한 기반위에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 하나 수행해오면서 質과 量的인 면에서 크게 확대 강화되어 우리나라 科學기술단체의 總本산지로서의 지위를 굳힌 한해였다.



(사진 :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시민 과학의 밤" 행사에 1천 2백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민 과학화운동의 일환으로 제 1회 "서울시민 과학의 밤" 행사를 비롯 科學化 模範事例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對外的인 image 구축과 아울러 제 1회 科學기술단체 사무국장회

의를 열어 團合의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科學기술단체의 현황과 이들이 안고있는 애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등 실질적인 연합회의 基本業務 遂行에 拍車를 加하여 效果를 거두었다.

◎ 國家의 大型課題 研究

먼저 금년에는 科學기술 진흥시책과 防災科學, 國民住宅문제 등 國家적 대형과제를 연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對政府建議과 관계당국 및 科學기술계에 반영하기 위한 3개위원회를 구성, 연구사업을 본격화했다.

金始源위원장(전국대 농대학장)을 위시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防災科學研究委員會는 지진·수해·한발 등 각종 재해대책의 방재과학연구 基本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담당자를 선정하고 현재 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國民住宅 연구위원회(위원장 慎武賊)는 2차례 걸쳐 위원회를 소집, 國民住宅문제 연구를 위한 基本方向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으며 政策研究委員會(위원장 金基衡)도 科學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의 연구에 착수했다.

◎ 全國民의 科學化運動 적극추진

법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민과학화운동의 일환으로 서울市民을 대상으로한 제 1회 "서울시민 과학의 밤" 행사를 개최, 科學기술계인 사를 비롯한 서울市民 1,500여명이 參加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 개최식, 2부 공연, 3부 국립천문대 및 국립과학관 무료관람으로 진행된 이행사는 科學기술을 藝術舞臺로 끌어내어 보다 效率인 科學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試圖한

첫행사로서 어렵게만 생각하던 과학기술을 市民들에게 “하면된다”는 관념을 심어주었다.

科總은 이외에도 생활의 과학화 표어 현상모집 및 포스터 제작배포로 과학화운동보급에 주력한 바 있는데 특히 12월 12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科學化 模範事例발표회”를 개최, 모범적인 과학화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과학화운동을 보다 확산 보급시키는데 기여했다.

전국민의 과학화를 促進하고 새마을事業의 効率化를 위한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技術奉仕團 활동사업은 지난 1년동안 현지기술지도 571회를 비롯, 신문 방송등 매스컴을 통한 기술지도 536회, 1마을 1과학 기술자 기술결연지도 2,496회를 실시했다. 특히 8월에는 대구에서 우수기술지도 사례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 ◎ 學會 學術活動 지원사업 擴大強化

科總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學會學術活動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4배가 增額된 4천만원으로 총 66개 학회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학회별 교부금을 결정했으며 학회지 발간(113회)과 학술발표회(63회)를 지원했고 10회에 걸쳐 국제분담금(국제기구가입학회회비)을 지급했다.

최신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와 해설 및 생활과학기술을 게재하므로써 과학기술의 진흥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혁신과 전국민의 과학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월간 「科學과 技術」誌가 내용과 체제가 폭넓게 쇄신 보강 간행되어 국내 과학기술계의 유일한 종합과학기술지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으며 외국의 과학자에게도 배포하여 상호정보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 ◎ 國際協力事業 門戶넓혀

작년에 이어 금년 4월에도 在歐科聯과 공동으로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차 國內外 韓國 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를 개최하여 學術研究 發表와 최신 과학기술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 학술대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과학기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들의 參與도가 높아 범국가적 학술제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우기 科總은 이 대회를 통해 재외과학자와

국내산업계 및 학계와의 최신과학기술 정보교류는 물론 고급두뇌유치에 관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국·공립연구기관 관계자 40여명을 초청한가운데 제1회 “연구관리세미나”를 개최하여 80년대 고도산업복지국가 건설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운영체제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기를 마련한 바 있다.

科總은 지난 11월 국제과학기술 민간 기구인 세계기술단체연합회(WFEO)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제과학기술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科總은 이미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태평양과학협회(PAS), 동남아 태평양지역 공학단체 연맹(FEISEAP)의 정회원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네번째로 국제민간기구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科總은 또 과학기술자의 해외파견 귀국자 동태조사와 훈련결과를 보급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技術協力”誌 및 “해외파견 귀국자 동태조사보고서” 발간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들어 기술협력지는 4회에 걸쳐 1,200부를 발간 배포했으며 “귀국자 동태조사보고서”는 2,295명의 동태파악카드를 완료하고 현재 원고를 작성중이며 “보고논문색인”도 12월중에 발간하게 된다.

#### ◎ 用語辭典 및 30年史 편찬

과학기술정보와 지식을 흡수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토착화하고 대중화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을 効率化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심화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용어사전” 편찬사업은 작년에 物理, 化學, 數學 등 기초과학분야 7,000 용어의 해설에 이어 금년에는 動物, 植物, 微生物 등 3개분야 7,000 용어에 대한 해설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그리고 국내 과학기술계의 발전과정을 조사연구하여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기 위한 “科學技術 30年史” 편찬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착수, 이미 152개 학회의 기초자료수집을 완료하고 해당전문가의 감수를 끝낸 바 있으며 通史 및 綜合年表를 작성하여 내년의 출판에 대비하게 되었다.